개성을 가보니

하루 일별一瞥의 관광기행

權 在 琮
편집위원

▲ 관음사 대웅전 앞에서의 필자

▲ 대흥산성 북문에서 아내 및 동행관관객과 함께

북녘 금강산 관광이 처음 열린 것은 1999년이었다. 벌써 10년 햇수가 되었다. 남북이 막히고 사변이 일어나 전선이 반도의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동족끼리 서로 도륙하고 조상이 물려준 강토를 초토화하다가 가라앉은 지 어언 40년, 155마일 휴전선으로 대치하면서 간단없는 긴장、공포 그리고 충돌을 해오더니 90년대 들어서면서 장벽이 다소 느슨해져 왔다. 당국자의 이벤트성 행사, 감격어린 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금강산에 면회소가 생겼고 이를 활용하여 남한 사람들의 관광이 성사되기에까지 이르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이같이 열린 금강산 관광에 우리 국민 정서는 부정적 측면이 앞섰다. 내나라 내 강산을 구경 가는데 비싼 통행세를 내야 하고 그렇게 내는 돈이 또한 총알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시각에서였다. 이런 시각은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반세기 전 북녘을 떠나온 수백만 실향민 노년층의 오매불망하는 정서가 금강산에라도 가서 북의 고향을 바라보자는 생각의 물결로 이어질 것으로 본 현대측의 예상과는 달리 전세낸 유람선 금강호와 설봉호 두 척에 태울 손님이 모자라 곧 배를 하나로 줄여 운항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거의 빈 배로 남북을 오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금강산 관광과 현대아산을 국책으로 살리는 방편으로 정부가 수요자의 비용을 부담해 권유해 보내는 관광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때 필자는 봉직하던 학교에서 '원로?' 대접의 특전으로 금강산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 여행은 금강산 구경에 대한 설렘보다는 불안과 속박을 겁내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당시 앞서 다녀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가지 못할 곳이라는 입소문이 있어왔고 또 그것이 차수를 더할수록 사실로 드러나면서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들던 바였다. 그런데 요즘은 그쪽 관광에 감시감독이 옛적에 비해 크게 누그러졌다는 소문, 그렇다면 이번에 개성 관광을 한번 나서보기로 하였다.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던 선죽교、만수산、박연폭포와 공민왕릉 등 고려 오백년 도읍지를 일별하고픈 생각이 불현듯 하였다. 그것도 당일 하루 일정이라니 더더욱 좋았다. 평생반려로 여가없이 살면서 별로 동반여행을 해보지 못한 아내와 같이하는 것도 의미가 깊었다. 하여 여행사에 신청등록을 해놓고 기다리기 달포에 날짜가 잡혀 마침내 가깝고도 먼 개성관광에 오르게 되었다.

'08년 5월 27일 당일 새벽 6시 정각 신문로 입구에서 집합하도록 안내서에 인쇄되어 있었다. 20여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 관광버스를 찾았으나 거리는 휑하게 비었고 간밤의 광우병촛불시위 자취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한참 기다리니 앞 유리에 '개성방문차량'이란 팻말을 붙인 버스가 나타났다. 반가움에 대뜸 버스에 오르려니 운전기사가 막는다. 그 막는 손살이 북쪽에 간다는 두려움에 그렇잖아도 주눅이 든 우리 내외를 움찔 놀라게 했다. 6시가 좀 지나자 명단을 들고 나온 사람이 호명하는 대로 승차해서는 옆자리의 아내를 흘깃 보며 긴장하지 말라는 신호의 미소를 보냈다.

이윽고 차는 낯익은 자유로를 달려 임진각을 지나고 7시에는 도라산역 남쪽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전기사로부터 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을 세세히 들었다. 기사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지난번 차수에서 있었던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북쪽에서 기념으로 돌을 가져온다든지, 디지털로만 가능한 카메라로도 이동중 차창 밖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각도로 사진을 찍되 잘못 각도가 빗나가서 피사체가 개성시내의 어떤 집이 된다든지 또는 차량 등이 사진에 찍힐 때는 500불 이상의 벌금을 문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나니 오래전 금강산관광에서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해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허가서 여행증을 받았다. 여기에서 또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이 전달되었다. 허가서가 망가지거나 물에 젖으면 변상을 해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들으면서 도라산역 남측 출입국사무소에서 북측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하였다. 이때가 8시 경, 북한 입국허가서에 번호가 주어지면서 같이 가던 일행이 다른 차량으로 흩어지는 이별의 아쉬움을 경험했다.

8시 40분쯤 버스 10대로 구성된 관광단이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오전 스케줄은 박연폭포 구경이었다. 북측 출입국사무소를 출발하여 좌측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보면서 한동안 이어지는 좁은 길을 벗어나니 곧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였다. 가는 연도는 점점이 깨끗한 정장차림의 초병이 서 있었는데 멀게는 약 1.5킬로 가깝게 500미터 간격으로 좌우에서 버스가 지나는 쪽을 보고 늘어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안내원에게 무슨 군인이냐고 물으니 좁은 길에 차가 교우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은 '차량이 없이 텅 빈 길인데 무슨 교행을 막는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일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는 북으로 트였는데 노면은 80년대 남한의 국도 수준으로 생각되었다. 시속60킬로로 달리는 관광버스의 흔들림으로 포장상태를 알 수 있었다. 연도의 못자리는 거름이 부족한 듯 생육이 부진했다. 보릿대는 이삭이 작아서인지 쓰러지지 않았고 논밭에 돌이 산재해 있었지만 양질의 토지임은 틀림이 없어 보였다. 이윽고 개성시가가 멀리 보이면서 집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초가집은 없고 모두가 기와집인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용마루에 요철이 많은 것은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랬다. 멀리 보이는 개성시내의 고층 아파트는 전력난을 감안하면 승강기 없이 오르내리기가 힘들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았다.

박연폭포 경내로 들어가니 창밖은 지금까지 보던 민둥산이 아니고 울창한 숲이 끝없이 이어졌다. 아름드리 고목도 울울창창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철저히 통제되던 사진 찍기가 이곳에서는 마음대로인 것이 좋았고 경내에는 '녹두지짐 매대'라는 간판이 붙은 판매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장뇌인삼차、커피、상황버섯차 등 여러 가지 차를 팔았다. 점원은 깔끔한 제복차림이었는데 남남북녀라는 말에 걸맞게 미모가 인상 깊었다. 또 이곳저곳에 경비원인 듯한 사람이 있었는데 관광버스 10대에 분승한 우리 일행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했다.

박연폭포朴淵瀑布는 웅장하고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산내림을 막고 버티어 성거산聖居山、천마산天摩山이 내리는 물을 둘레 24미터, 지름 8미터, 깊이 5미터 크기의 바가지 모양 연못 박연朴淵에 모았다가 넘쳐 흘리니 물은 스스로 37미터 절벽으로 비류직하飛流直下. 폭포로 패인 고모담과 함께 주위의 숲은 황금비를 이루니 그 조화로움이 자연 아닌 것이 없다. 이로 인해 그곳에 머문 우리일행도 덩달아 모두 연적然蹟의 한 물결이 아닐 수 없었다.

폭포 아래 왼쪽에는 10여명이 지필묵 가지고 늘어앉아 시상을 떠올리며 담소할 수 있는 거북바위가 있었다. 이곳에서 황진이가 머리를 풀어 썼다는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의시은하락구천疑是銀河落九天'이라는 극초서 글귀는 참으로 이 경치에 걸맞은 작품이었다. 필자도 이에 도취되고파 잠시 앉았다가 길을 재촉했다.

폭포를 좌로 하고는 관음사를 오르는 길이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안개바다 위에 떠가는 배를 탄 느낌이 든다는 범사정泛斯亭이 있는데 이는 보존유적 제524호로 1700년에 지은 건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잠시앉아 눈을 감았으나 침잠하기에는 주위가 너무 소란했다. 가파른 산길을 다시 재촉하니 보존유적 제126호 대흥산성大興山城의 북문이 나오는데 이는 고려시대에 천마산과 성거산의 험준한 산세를 연결하여 쌓은 견고한 돌 성이었다. 둘레가 약 10킬로이며 4개의 대문과 여러 사잇문、암문暗門、장대將臺、망루、치雉 등 시설물이 남아 있으며 특히 이곳 북문의 축대와 성벽은 고도의 축성기술을 집약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산길 옆으로 크고 작은 화강암 바위가 즐비한데 바위마다에는 인생의 수유須臾를 아쉬워한 시인 묵객이 영원을 염원하면서 이름자를 새겨놓았는데 과연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해줄까 하는 생각에 나그네의 가슴이 스산했다. 길 중상부의 한 바위에 새겨진 여러 이름 아랫자락에 권이형權以衡、권대성權大星이란 우리 권씨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적이 고인을 뵙는 듯 반가웠다.

큰 나무로 하늘을 가린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관음사에 도착하니 입구에는 국가천연기념물 제532호라는 은행나무가 서 있고 경내로 들어서니 마침 만개한 불두화佛頭花가 반겼다. 개성시인민위원회가 설치한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관음사의 대웅전은 고려시기인 970년에 세운 건물이다. 관음굴과 승방, 그리고 고려시기에 세운 7층 석탑이 있다. 대웅전은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문살로 하여 이채를 띠며 선조들의 예술적 재능과 슬기를 이 건축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대웅전 추녀 밑에서 멀리 보이는 건너편 산등성이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북악을 닮아 마치 북한산의 어느 한 암자에 오른 기분이었다. 대웅보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으로 9칸 팔작지붕을

7면에 계속

▲ 선죽교 앞에서의 필자